

문 대통령 “공군 중사 성폭력, 최고 상급자 포함 지휘라인 엄정 처리” 강력 지시

“절망스러웠을 피해자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2차 가해, 피해호소 목살 엄중한 수사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소속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

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목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에 포함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 지시 배경에 대해 “꽤 심각하고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 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나왔다”며 “대

통령은) 계속 관심을 갖고 안타까움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휘라인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범위보다는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대통령은) 말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색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부대에서는 다음 날 가해자 분리 조치를 취했고,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같은 말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달 18

일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겨지던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는 숨지기 전날인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 모습까지 촬영해 남겼으며, 휴대 전화에서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라는 메모 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2일 오후 가해자로 지목된 장 중사에 군인 등 강제추행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소에 구속 수감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전투비행단 지휘관들의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시도,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 현장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강제추행 피해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은 사망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일단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 인품에서는 공군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중사 측은 이날 오후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3명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중사에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도지사·전주시장 후보에 비례 국회의원 인센티브’

국힘 정운천 의원, 당선보장 비례대표 제안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전주시장 후보로 나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2대 비례 국회의원 자리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3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2000세대의 세대변화 요구가 이준석 당대표 후보를 통해 분출돼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치전반에 대한 변화 분위기에 맞춰 능력 있는 지방선거 인재 후보군을 영입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전주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이후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불보지가 돼 국민의힘이라는 타이틀로 도지사, 전주시장 등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들 후보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을 차기 비례 국회의원 자리를 제안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5·18구속부상자가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 성일중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공식 초청 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정 위원장은 “그간 유족들과 수차례 만나 대화하면서 국민의힘이 5.18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났다”며 “국민들의 마음에 국민 대통합의 희망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 확장할 때 지지 만들어져”

문 대통령, 민주 초선의원들 만나 '내부 단합'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내부 단합’을 강조했다. 당청 갈등을 비롯한 임기 후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90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문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첫 만남에서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고 공감을 이끌어 “모처럼 마련된 지리가 소통의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당청 관계에서 난기류를 형성했던 초선 의원들을 다잡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달라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야당 반대가 거센 3명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로 다음 날 공개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당청 갈등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까지 했다.

여기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판을 계기로 송영길 당 대표의 ‘조국 사태’ 입장 표명 여부를 놓고 소신파와 강경파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내 어수선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 68명을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 단합을 강조한 것은 결국 최근 당청 당내 이견을 최소화해 남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러면서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달라”면서, 재차 내부 단합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뉴시스

“김제시 분만취약지 지원 신규 대상지 선정 현황”

민중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이 의원에게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보건복지부 공모 추진 사업이다.

지난 1월 김제시 관내 24시간 분만의료시설이 가업여성 인구 및 출생아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 김제·부안 지역 주민들에 대한 24시간 분만진료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제시는 울초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김제시가 보건복지부의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선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원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이 인구감소 소멸위기지역 지자체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경색된 기준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의 인구문제와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정 기준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을 추가 신설했고, 김제시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유호상 기자

임·순·남 지역발전협의회 ‘민주, 이용호 의원 복당시켜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선거법과 관련해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임실·순창 지역발전협의회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복당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따라달라”며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해당 지역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결성돼 현재 80여명의 회원이 있는 민간 단체이다.

이들은 “이용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복당 공약을 걸고 당선된 지 1년이 지났고, 이 의원 역시 지난 달 복당 신청을 한 만큼 민주당이 조속히 복당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